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6월 30일(목) 총 5매			
담당 부서	자치경찰정책과	담당자	• 정책조정팀장 박정주 ☎ 458-7471 • 담당자 원종훈 ☎ 458-7299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함께하는 인천 자치경찰, 순찰차 홍보활동 펼친다
-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맞아 순찰차량 활용해 '자치경찰' 홍보 -
- '안전한 도시 인천, 시민 곁엔 '자치경찰' 」 홍보 스티커 부착 -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인 7월 1일에 맞춰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순찰차를 활용한 자치경찰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인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시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출범과 함께 시작한 1호 사업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이어 올해 2호 사업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도시 인천’과 같이 시민 체감형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직도 낯설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인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보다 친밀도와 인식도를 높이하고자 시민의 안전을 24시간 지켜주는 112 및 교통 순찰차 220대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자치경찰을 알리게 됐다.

홍보스티커 문구는 지난 5월 공모전을 개최해 내부 심사와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거쳐 최종 안전한 도시 인천, 시민곁엔 ‘자치경찰’로 결정됐다. ‘안전’과 ‘인천’을 강조하고 ‘시민’과 ‘자치경찰’이 늘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홍보스티커를 부착한 순찰차는 7월1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인천지역 골목길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주민체감 안전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친근한 자치경찰로서의 모습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전면 부착 시행에 앞서 지난 28일 인천삼산경찰서 현장 간담회와 병행해 순찰차 홍보스티커 부착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순찰차량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주민친화적인 경찰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및 홍보계획

참고 1

순찰차량 부착 예시



참고 2

홍보 스티커 (가로 65cm, 세로 25cm)



참고 3

220628 삼산경찰서 방문 중 홍보 스티커 부착 행사



순찰차를 활용한 인천자치경찰 홍보 계획

자치경찰제 시행('21. 7. 1.) 1주년을 맞아 내외부 인식도 제고하고자 112·교통 순찰차량에 자석형 스티커 부착하여 자치경찰 홍보 추진

□ 추진 개요

- (운영기간) '22. 7. 1. ~ 12. 31. <6개월간>
- (대상차량) 총 220대(교통 39대·지역경찰 181대)
- (홍보방식) 차량 뒷문 좌우 측면에 자석형 스티커(65cm×25cm) 부착

□ 스티커 최종 선정안 (문구 제안자 : 청 경무기획과 경감 김기성)



- (문구) '안전'과 '인천'을 강조하고, '시민'과 '자치경찰'이 늘 함께한다는 의미
- (디자인) 인천시 심볼마크(배경)와 인천을 상징하는 인천대교를 함께 배치하여 직관적이고 조화롭게 인천자치경찰을 표현



*자치경찰위원회 브랜드디자인(BI) 반영 ('22. 6. 20. 자경위 회의안건 가결)

□ 후속 계획

- 삼산경찰서 간담회시 순찰차 부착 행사(6. 28.(화))
-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7. 1.(금))에 맞춰 부착 시행

<그간 추진사항>

